

제1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6. 1. 12(화)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강수미, 김신원, 김연규, 김윤섭, 노승범, 문선욱
변태순, 서수경, 전옥, 전항섭, 조유진, 최은경, 황현숙
- ◆ 안 건 : 미술작품 8건 12작품(조각 9, 회화 3)
[신규 10작품, 재심 2작품]
- ◆ 결 과 : 승인 11작품, 부결 1작품
- ◆ 회의록 확인 : (서명) (서명)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6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13명 중 13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 내용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취되며, 회의록으로 기록되어 시민에게 공개 예정입니다. 본 회의 종료 후 참석위원 중 2명은 회의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서명하여야 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확인서명 요청이 있을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거수) 과반수 의견이 나왔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작품검토 하고 채점 후 특이사항 등을 논의 하겠습니다.

다들 검토해 보신 걸로 알고 작품별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작품입니다. 작품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1번 작품은 각가 1-1, 2, 3번으로 따로 따로 검토하는거죠?
- 그렇죠. 1-1입니다. 델타 무브망작품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작품?
- 별 특이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조명이 우선이고 색깔도 괜찮죠? 우레탄 도장이라..
- 16페이지 보면 상세설치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초 콘크리트에 앵커를 고정하는데요. 앵커로 고정된 구조체가 지표면에 설치가 되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전경 CG작업이 있는데 조각품이 위치하는 부분이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16페이지에는 콘크리트만 표시되어 이에 대한 토심이 필요한데 그런 게 표시가 안되어서 웬지 가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조각물 자체도 일정기간에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하단 바닥 점점부부터 잔디하고 만나게 되어 작품이 누수로 손상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작가와 조경팀이 만나서 적절한 협업을 통해 설치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하부구조를 화강암이나 다른 재료로 작품하고 어울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잔디가 자라기가 힘든 환경이죠.
- 토심을 위에 깔고 잔디를 자랄 수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형물하고 토심을 심으려면 공간이 있어야하는데

그냥 조형물이 들어 왔구요. 사실은 작가의 의도가 잔디위에 그냥 올려 놓고 싶을 수 있으니까 받침없이 그냥 올려놓고 싶을 수 있으니까 토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합니다.

- 잔디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보통 지하1층은 층고가 높은데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 지면 못할 것은 없다고 전혀 없다고 보여 지고 스테인리스가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닿아서 변질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오염은 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보면 배수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 기초하부에 물이 빠져야 하는데요. 빠지지 않으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경의 입장에선 메이저한 고민인데요.
-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깊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은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엔 지적하신 부분에서 절충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이 작가가 어떠한 기단도 없이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라면 기단을 설치하라든지 하는 다른 조건을 달 수는 없을 거 같고 환경과 생육을 고려하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별도의 구조를 만든다고 해도 주변 환경과 충돌이 일어날 거 같아서요. 차라리 잔디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배수처리를 신경 쓴다면 더 이상 검토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2 작품은 여기저기 많은 거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 많이 봤거든요. 원래 이런 작품을 하는 작가이신 건 아는데 너무 많아서..

- 컨셉 설명이 역동성 등을 얘기하셨는데 그림을 만드는 앞에서만 봤을 때 측면에 역동성이 있는 건 같지 않거든요. 여기저기 봤던 것과 예술성과 환경과의 조화 등에서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 작가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작품을 하셨네요. 유지나 보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무재질로서?
- 실내에 있는 작품이어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작가 트레이드 마크여서 그다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 벽면에 비례해서 작품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 저도 공감합니다.
- 로비가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닌 거 같은데 사람들이 접근해서 알아보는 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간 전체의 비례와 걸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크기가 더 커져야 할 거 같습니다.
- 49페이지에 보면 실제 비례가 이렇게 나올까요? 실제 층고가 이렇게 나올까요.
- 작품위치가 너무 높은 거 같습니다. 보라고 만든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원래는 더 아래로 내려와야 할 거 같은데요.
- 건축벽면 내부에 설치되는 작품인데 실제 걸으면서 보기에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3m인데 이에 대해 작가가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작품 설치 위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시고, 작품 크기가 로비에 맞게 커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전반적으로 평가 항목으로 보면 접근성과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의 프로포션이나 이런 정도의 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대규모 벽에 눈높이에 걸리지도 않는 식으로 작은

규모로 설치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크기로 해결되든 높이로 해결되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환경과의 조화나 접근성 면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작업을 밑으로 내리기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숨어 있는 문들이 있어서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로 올린 것도 그런 이 유인거 같습니다.
- 현실적으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수가 낮아서 어떻게 의견이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이 작가의 평상시 형성된 가격에 비해 높게 선정된 거 같습니다. 작품 크기를 높게 요구를 해도 될 거 같습니다.
- 작가 본인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만 변경시켜도 작품 제작을 포기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 환경에 어울리게 맞는 작품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요. 그에 맞지 않다면 어렵겠네요.
- 만약 제작이 된 상태라면 수정이 불가능 할거구요. 제작 전이라면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 후자라면 저도 의견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 작가가 권고를 받아들일까요?
- 그건 작가에게 권고할게 아니라 그래서 평가항목 얘기를 한 건데요. 환경과의 조화에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되지 굳이 권고를 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 의견이 크기가 좀 커져서 환경과 좀 맞았으면 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 아직 통과된 게 아니니까요. 우선 결정 된 후에 논의해도 될 거 같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저는 이 작품은 작품가격도 좋고 작품도 좋은데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작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핸드 페인팅으로 했으니 어떻게 유지보존을 할 건지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료가 우레탄도장이어서 안 한 거 같습니다.
- 유지관리라고 보면 재료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고 내구성이 뛰어난 가장 견고한 도료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도료를 쓰는지는 얘기가 없어서요. 보통 다른 우레탄 도장이면 말을 안 할 텐데 핸드페인팅을 강조하는 작품인 만큼 핸드페인팅의 디테일을 보존하기 위한 걸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도장은 아니죠? 도장하고 도색은 다른데 도색이 아닌가요? 정확한 재료가 없는 건가요.
- 재료보다도 보존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확하게 무슨 재료로 핸드페인팅을 했는지는 나오니까?
- 우레탄 도색을 도장이라고 한 거 같습니다. 짐작에는 우레탄 도색을 하고 열처리를 당연한 마무리니까 도색을 우레탄 도장으로 오기인거 같습니다. 오늘 나온 작품 중 가격대비 가장 성실한 거 같습니다.
- 컴퓨터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도색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작품의 질의 차이가 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배경이 되는 물 부분은 시공사의 몫인가요. 작가의 작업인가요.
- 장소성을 활용한 거 같습니다. 분수까지의 가격은 안 됩니다.
- 분수는 아닌데 윈드밀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돌려 역동적이라고 보이게 했다는데 무리하게 컨셉을 설명하신 거 같고 위에 바람개비는 너무 작게 들어간 거 같은데요. 크림짜는 기계처럼 흘러내린 거 같은데 위에 부분이라도 돌아가는 게 보여야 낫지 않

을까요. 이거는 그래픽그림일 뿐이지 도색에서 이런 느낌이 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에 거라도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체가 돌아가지 않을 바에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람개비라는 느낌도 들고 풍차같기도 할거 같구요. 가운데 기둥이 힘을 굉장히 받는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 1m가 안되는데요. 풍량계 같은데요.
- 조형작품에서 키네틱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설명상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고정된 거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 시각적으로 보이면 되는 거지 굳이 키네틱으로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 본인이 회전하는 것을 제안하셨으니까 검토해보는거죠
- 보이기에 이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떤 장치를 달아서 돌다가 망가지면 차라리 안다는 게 더 좋습니다.
- 제 생각에는 문제가 2가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이스가 먼저 디자인이 되어야 할 거 같고요. 물하고 연결이 된다면 우레탄이 아니라 투명성이 있어서 빛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물하고 연결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물이 없을 때가 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 겨울에는 삭막하고 비워버리는 느낌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작품을 보면 설치되는 공간에 수경공간과 함께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데요. 겨울이라서 물이 빠져나갈 때 색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여름에 물이 침수되는 부분하고요 물때가 많이 낄 텐데 나중에 물높이 낮아질 경우 시각적으로 혐오스러울 수 있구요. 13페이지에 보면 명판이미지에 낮은 쪽에 수치가

안 나왔는데요. 비슷하게 거의 수평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요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네 충분히 논의한 거 같구요 다음 작품 보시죠. 3번 작품입니다.
- 푸른하늘 은하수와 학처럼 고고하게는 같은 작가인가요?
- 다른 분입니다.
- 작품의 명판이 뒤에 높이가 10센치인데요 앞은 거의 표면이고 평지인데요 좀 높여야 할 거 같습니다.
- 작품성도 좀 개인적으로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12페이지에 보면 렉산 시트가 조각재료로써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트면 시트지 종류일거 같은데..
- 이게 햇빛에 적당합니까?
- 이 작가의 비슷한 작품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렉산 시트로 된 부분이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상없이 견디고 있습니다.
- 개인취향이겠지만 작품성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 이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 그럼 다른 곳에 있는 작품과 이 작품은 비슷한가요?
-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거 같습니다.
- 이 작품은 작품내에서도 조화가 안 되는 거 같고 건물하고도 조화롭지 못 하는 거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주 조각상 주변으로 하부에 기능적으로 시팅 에어리어를 만들었는데요 치수들이 나오는걸 보면 높이는 55센치이고 30센치인데요 앉을 수 있는 높이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기능적으로 쓰

임새를 높이려면 더 높여야 하고 여러 가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파운데이션이 낮고 시트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환경 조형물이기 때문에 7페이지를 보면 비유하자면 목이 굵은거죠.

-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안정적입니다. 기단이 낮은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불특정 다수가 쓴다고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요. 어린이용, 어른용으로 나눌거면 업앤다운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높이를 조정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 의자가 물고기 모양인가요. 나뭇잎모양이군요. 학다리 있는데 까지가 2m밖에 안되는데요. 아이들은 닿지 않겠네요.
- 업무지역이라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 같구요. 학의 이미지의 스케일 비례가 좀 어색하거든요.
- 원과 만나는 부분이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아하게 만나야하는데 둔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원과 받침대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받침대와 요소들이 많은데 조화는 안 되고 비례도 엉성하고요.
- 너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 학처럼 고고하게 인데요. 타이틀로 부터 시각적으로 연상을 시키는 부분이 매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원은 크고 잎사귀도 큰데 학은 너무 작아서 장승의 꼭대기에 올라앉은 새 같은 느낌입니다. 작가가 고민을 했겠지만 타이틀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5-1 작품개요를 보면 작품재료에서 1급자동차 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원래 우레탄 도장은 가마에 구워야 하는데 작품이 크잖아요. 구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도장을 쓴 건데 1급이라고 한 거는 색 발열 등이 좋은 걸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이 작품의 문제가 윗부분의 날개가 운영자 작가와 너무 비슷한 거 같습니다.
- 재료가 다르니까
-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날개의 각도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조형성이나 그런 면이 나온 작품 중에 가장 심플한 거 같은데요.
- 하단부가 높이 4미터에 5티가 괜찮을까요.
- 그 부분은 조각가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 같습니다.
- 안에 보강재가 들어가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작품성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은데요. 심플해서 도심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 같습니다.
- 지나치게 복잡한 거 보다는 공공미술로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작품이 좋은 거 같습니다.
- 오방색을 모티브로 했다는데 오방색을 넣어서 아치 부분에 들어간건지 색채가 명확하게 명시 되지 않았는데요. 오방색의 모티브에서 가져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데요.
- 밑에 조명을 넣어서 색채를 적용하는 거 같습니다.
- 전체를 오방색으로 활용했다는 거 같습니다.
- 양카를 박아서 라인을 살려줘야 아름다운데 이렇게 용접을 해 버리면 닿는 부분이 둔탁하기 때문에 라인을 살려서 작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높이가 4m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뷰가 아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 3이 같은 작가인거 같네

요.

- 한지가 보존성에 있어서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존성의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될 듯합니다. 액자 형식이든 아크릴 형식인지 체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아크릴 박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벽면에 작품이 3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만 보면 괜찮은데 다 붙어 있다고 보면 전체 벽면으로 구성된 거 같지가 않고 별도의 작품같아 보이는데요. 이런 게 개인의 사적공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공공미술 차원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의 조화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 5-3이 네 작품이 작은데요. 한 개의 작품이 이 컨셉이면 옆의 작품이랑 조화를 이룰 텐데 패턴이 갈라지는 작품이 옆에 붙으면 기존의 다른 작품도 시각적으로 해가 되지 않을까요.
- 두 개를 제안하라고 해서 사각형 작업은 코너 돌자마자 왼쪽에 있고 메인으로 한 건데요. 시리즈처럼 보여지는 걸 의도한 게 아닐까요.
- 5-2와 3이 같은 작가처럼 보이지가 않고요. 따로 놀아요. 3은 전혀 다른 작품 같아요.
- 공간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보면 5-3은 벽면 너무 끝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구요. 로비 면을 다시 보시고 작업하시면 어떨지요. 좀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요.
- 통합적으로 5-2,3의 레이아웃을 다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도면상에 보면 왼쪽에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투시도를 활용했는데요. 현장에서 준 투시도에 맞춰한 거 같은데요.

- 심의 자리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거나 디테일한 작품의 평가를 논할 수는 없고요. 5-2나 3이 위치나 그런 면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가부만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 6번 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 재심작품인데요
-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작품선정을 한 후 별도의 DMC심의 를 거쳐 당초 당선작이 변경이 되어 들어온 작품입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변경 후의 작품이 변경전의 작품보다 나아진 거 같지는 않습니다. 17과 18페이지입니다.
- 심의에서 변경 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파라솔을 놓는 부분이 완성의 여부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죠?
- 아닙니다. 변경전이 남자가 누워있는 조각이 원래 안이었는데 다음이 무색처리하고 파라솔 처리한 것까지가 변경 후이고 이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 파라솔과 선베드 이런 초이스 자체를 작품과 연관해서 보는데요. 작품의 전체로 보면 될 거 같고요. 작품의 변경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 심의대상이면 보면 될 거 같은데요. 우리의 심의요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서 좀 고려를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 변경전과 변경후를 지표로 한 거는 18페이지에 변경후라고 작품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분명히 파라솔과 선베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작품의 일부인거죠.
- 그건 컨셉으로 봐야 할 거 같고요.

- 큰 대로변에 누워있는게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 변경 전의 작품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주변을 보면 좀 썩똥맞은 느낌을 드네요. 작품을 보는 관점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데 분명히 이걸 어떤 컨텐츠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근데 이거 가산점을 꼭 줘야하는 거 같아요
- 꼭은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가산점을 주는 건 공모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공모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주는 건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광섬유를 사용해보셨나요? 1m 높이에 손이 닿는 부분인데요 괜찮은가요?
- 아크릴이라서 괜찮습니다.
- 접근성 때문에 손상이 갈까봐 그러는데요. 링으로 주욱 올라가는 데 이 부분을 사람이 짚고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조형적인거야 무난한데요.
- 올라가는게 어려울 거 같은데요.
- 조명이 LED가 수명이 4년 정도인데요. 안에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2년 정도인 걸로 아는데 조명이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유지보수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 요즘 LED가 성능이 좋아져서 더 오랜 기간에도 이상 없습니다.
- 22페이지에 보면 가운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보도블럭과 같이 가는데 색을 달리했는데요.

-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거 같습니다.
- 다들 벌어지는 거 라든지에 대한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 조형물에 신경쓰느라 바닥면이나 기타 주위 다른 부분들을 놓친 거 같습니다.
- 작품을 설치한 후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 이후에 완성 작품의 이미지를 받으시니까?
- 설치 완료 후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담당자가 있어서 공공미술 포털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 경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 감리사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재심 작품이네요.
- 재심사유가 뭔가요?
-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 저는 이게 더 신선한 거 같은데요 요즘 스테인리스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지 않고 브론즈 작품도 안 나오고. 아마도 이 작품은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정도의 화강석을 다룰려면 공정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 그럼 채점표를 각자 확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 네 결과 나왔습니다. 이중 논의 중에 나왔던 1-1 하부구조에 30cm토심과 배수처리에 대해 작가에게 작품 설치 시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회화작품 작품을 공간의 규모 맞추어서 작품 스케일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작품도 핸드프린트 작품에 대한 유지보존을 강화하는 것을 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드밀 사계에서 움직이는 윗부분 조정하는 걸 부기할까요? (의견청취 후) 그럼 그냥 작은 부분으로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처럼 고고하게의 의자부분은 높낮이를 맞추는 사항으로 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의결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은 12개 작품 중 3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6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